



2024년 6월 16일(제1198호) 연중 제1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기다림과 완성 그 이르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사람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사람은 수확할 때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드러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없고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싹이 나서 줄기가 튼튼해지고 꽃을 피울 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이 작은 씨앗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하늘의 새들을 모두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하느님 나라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위대한

완성을 향해 성장해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혹은 기도한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하느님께로 그 탓을 돌립니다. 곧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을까? 하느님은 어디 계시기에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왜 드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기다림의 여유, 불편함을 감내하려는 노력이 없어서는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완성을 향해 긴 호흡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향해 긴 호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의 여유, 불편함을 감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어떻게 얼마나 자라는지 매 순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듯, 하느님 나라도, 우리의 신앙도 날로 성장해 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석(20주년) 신부
환상대(제15특수임무부행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본보송

예제 17,22-24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2코린 5,6-10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르 4,26-3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다섯 번째 시집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외에 이제는 다른 선교사들의 건강도 크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베르뇌 주교님께서 너무나 노심초사하고 과로하시므로 나날이 생명이 꺼져 가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교님을 잃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무수한 죄과를 불쌍히 여기시어, 지극히 좋으시고 조심성이 많으신 우리 주교님을 장수케 하시며, 덕화(德化)가 날로 융성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만일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재난으로든지 벌하시더라도 다만 우리에게서 우리 목자만은 앗아가지 마시기를 빕니다.

또 큰 흉년이 들어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못살 지경입니다. 전에는 쌀 한 말에 20푼이나 25푼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80푼이나 90푼까지 올랐고, 어떤 곳에서는 120푼이나 그 이상에 팔립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변칙적인 별자리가 나타나 조선 전체가 인심이 흉흉합니다. 머지않아 서양 함선들이 쳐들어와서 조선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전국적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서양 함선들이 빨리 오기를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선은 이 상태로 지탱할 수 없고 자멸할 것이다. 차라리 서양 함선들이 빨리 와서 더 좋은 상태로 철저히 개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조정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다” 고 말합니다.

벌써 지난해부터 많은 점쟁이들이 나타나 서양 함선들이 언제오고, 또 몇 척이나 올 것인가를 예언했다는 소문이 떠들썩합니다. 어째서 민심이 온통 이렇게 돌아가고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전체가 장차 천주교 나라가 된다고 그럴싸하게 예언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어떤 암시나 예시일까요?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천주교구 양입교회시인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복된 사람들

님의 손으로,
님의 마음으로,
잘 차린 자리입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우리 또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
복된 사람들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성모님 대관식



옛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청색 겹옷에 붉은 옷을 입으신 성모님이 중앙에, 좌측에 예수님과 우측에 하느님(두 분 다 붉은빛의 의복)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구름은 아기 천사들이 받치고 있다.)

이 세 인물의 모습은 인간의 심장의 모습을 한 형태의 역삼각형 구도로, 성모님이 관을 받으시면서 당신의 가슴, 즉 심장에 손을 대고 계시는 것과 연결된다. 예수님과 하느님, 그리고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함께 성모님께 관을 수여하고 계시는데, 이는 성 삼위일체 교리를 나타낸다.

성모님의 겸손한 표정과 그림을 압도하는 피와도 같은 붉은빛이 심장 모양의 구도와 연결되어 마치 심장이 박동하는 듯한 효과도 주는 인상적인 작품이다.

벨리즈케츠(1599년 ~ 1660년)
1635년 ~ 1636년 제작
캔버스 위 오일 / 178.5 × 180cm
마드리드 프리도 미술관, 스페인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1주일: 환상대 이상용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6월 16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국장회의
 때·곳: 6월 18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2024년 군중장교 임관식 및 미사
 때·곳: 6월 21일(금),
 육군종합행정학교 / 남성대 성당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